

예수님 이야기

④ 가전고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심)

베 드 로 (독백) 어부 생활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놀랄만한 일들도 있었고, 무서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건 지금껏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멋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지 않나요? 제가 예수님을 지켜보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공부 엄청 좋아하세요. 성경을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했던 것들을 엄~청 쉽게! 엄~청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시지요.

예 수 님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성경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란다. 말씀을 잘 읽고 순종하게 되면 진짜. 진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단다. 알겠지?

베 드 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마다 정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감동의 눈물이 가슴에서 우러나오고 막 터져나오는데... 카하... 정말 감동 감동!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파하는 일'에도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였다!" 고 전파하시면서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전파하셨지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길 바라게 되었고, 그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속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가~득 부풀어오르고 소망도 가~득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베 드 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고치는 일'에도 진심이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단지 육체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셨어요.
 마음의 병까지도 세심하게 살피면서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과 '전파하는 일',
 그리고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가!전!고!
 언젠가 예수님께서서 이런 일들을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진짜 깜짝,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들을 하신 이유는!!!
 바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셨고,
 불쌍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꼭 '목자 없는 양'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고생하며 굶주려 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셨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바로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와 같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